












	타이틀 - 재래시장 그 달콤 쌉싸름한		
2. 해외 재래시장	1)스페인 바르셀로나 산타 카테리나 시장 -관광객으로 붐비는 바르셀로나 시내 -고딕지구의 전통건축물 사이에서 눈에 띄는 화려한 건물의 재래시장 -많은 관광객이 시장의 화려한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 -지중해를 통해 바르셀로나 항으로 온 여러 국적의 상인들이 물건을 넘기는 모습. -시장 상인이 TV를 통해 엘 클라시코 (FC바르셀로나vs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관람하며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	Na) 지중해 연안 정열의 도시 바르셀로나. 매년 700만명의 관광객이 이 도시를 찾는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북적이는 중세교회와 대성당사이를 지나다보면 나타나는 독특한 지붕의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카탈루냐 지방의 랜드마크가 된 재래시장 산타 카테리나 시장입니다. 카탈루냐 지방은 예로부터 토지가 비옥했고 지중해무역이 발달해 상인들의 발길도 잦아 큰 시장들이 형성되었는데요. 이런 시장들은 오히려 스페인 중앙정부의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하는 카탈루냐 지방은 마드리드 중심의 카스티야 지방과 오랜 반목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카탈루냐 사람들의 저항의식을 상징하는 시장입니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 전경)  (카탈루냐 지방 지도)



	<p>-스페인의 지도 (스페인 영토 중 북동쪽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탈루냐 지방)에서 연합군의 침략으로 점령당하는 바르셀로나 애니메이션</p> <p>-헤밍웨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전쟁 장면</p> <p>-시장 곳곳에 걸려있는 카탈루냐 국기와 그 색상의 여러 천, 옷가지의 모습</p> <p>-갓가지 붉은색, 노란색의 청과물의 빛깔로 낭만적으로 물들어 있는 시장의 모습</p> <p>-시장 상인대표 인터뷰 (바르셀로나의 원정 유니폼을 입고 있음)</p> <p>-관광객들이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아름다운</p>	<p>카탈루냐 지방은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카스티야와 프랑스의 연합군에 점령당해 스페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p> <p>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배경이 되기도 한 1936년의 스페인내전에서는 독재자 프랑코장군에 저항하는 공화파들이 카탈루냐지방에 집결했지만 또 다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저항과 독립을 염원하는 상징이 담긴 국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시장의 지붕과 마찬가지로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시장 곳곳에 있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덕분에 시장내부가 온통 정열적인 붉은색과 노란색의 빛깔로 물들어 있네요.</p> <p>int) 노란색은 카탈루냐의 황금빛 대지를, 빨간색은 연합군에게 항복할 당시의 피를 상징해요.</p> <p>FC바르셀로나의 원정 유니폼도 이 색이죠.</p> <p>우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축구를 하면서도 그때의 아프고 치욕적인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p> <p>Na)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1848년 완공 된 후</p>	 <p>(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영화 포스터)</p>  <p>(카탈루냐 국기)</p>
--	---	---	--



	<p>전경을 카메라렌즈에 담고 있는 모습</p> <p>-길거리화가가 시장을 배경으로 관광객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p> <p>-바르셀로나 시내 곳곳에 있는 타일로 장식 된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 공원 등)</p> <p>-지붕이 붉은색과 노란색 타일 위주로 구성된 모습</p> <p>-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인터뷰</p> <p>-시장의 가게마다 잔뜩 진열 된 토마토</p> <p>-토마토를 판매하고 있는 과일가게</p>	<p>1997년부터 8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가장 카탈루냐다운 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p> <p>리모델링 당시 바르셀로나 주민들은 카탈루냐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디자인을 원했는데요. 그래서 카탈루냐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유의 타일 32만5천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p> <p>지붕을 보면 시장의 신선한 상품들이 떠오르지만 그 속에는 카탈루냐만의 저항의식이 스며들어 있죠.</p> <p>int) 우리는 이 시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시민들의 삶속에 카탈루냐의 저항과 독립성이 새겨지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카탈루냐의 정열과 역사를 느끼기위해 이 시장을 찾습니다.</p> <p>Na) 시장 이곳 저곳에 부끄러운 소녀의 볼처럼 붉게 물든 토마토가 잔뜩 쌓여있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토마토가 있는걸까요?</p> <p>int) 8월이면 '라 토마티나' 라는</p>	 <p>(바르셀로나 원정 유니폼)</p>  <p>(바르셀로나의 타일로 만든 인형)</p>
--	---	---	--




	<p>점원 인터뷰</p> <p>-상인들이 토마토를 진열하다가 장난스럽게 토마토를 던지며 노는 모습</p> <p>-토마토축제 영상자료 (토마토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 수치 자막)</p> <p>-출입이 통제 된 장소에 사람들이 구경하며 사진찍는 모습</p> <p>-주변에 있는 고딕양식의 건축물과 어우러져 있는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전경</p>	<p>토마토축제가 열려요. 약 120톤의 토마토를 거리에 쌓아놓고 서로에게 던지며 노는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각 시장들이 토마토를 공수 해놓아야 합니다.</p> <p>Na) 토마토축제의 유래는 1944년 토마토 값이 폭락한 것에 분노한 농민들이 시 의원에게 토마토를 던지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먹지 않고 던진다니 아깝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농민의 지갑도 두툼하게 만들어 주고 세계적 축제로 발전해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니 이곳의 상인들은 기쁘기만 합니다.</p> <p>시장 한편에는 출입을 통제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리모델링 당시 발견 된 고대 유적지 때문인데요, 훼손시키지 않고 시장 내부에 보존시켜놓았습니다.</p> <p>고대 로마군이 이 지역을 점령해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고대 유적지와 공존하고 있는 시장.</p> <p>이곳 시민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이</p>	 <p>(토마토 축제 장면)</p>  <p>(시장 내부 고대유적 중 일부분)</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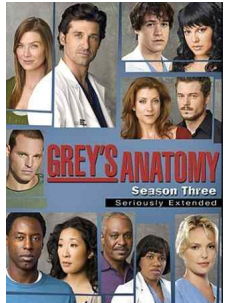

	<p>-시장을 배경으로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장식 된 옷을 입은 집시가 춤을 추며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는 모습</p>	<p>느껴지는군요.</p> <p>카탈루냐 사람들의 저항의식이 배어있는 이 시장은 그 문화와 아름다운 디자인이 어우러져 정열의 빛깔로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p>	
	<p>2) 일본 쇼와마을 재래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오이타 현 전경 - 분고타카다 시 쇼와 마을 입구 - 입구에서 상가 안쪽으로 천천히 이동 - 헬리캠을 이용한 상가 버드아이 샷 (쇼와 상점과 쇼와로만조는 붉은 색으로 테두리 표시) - 쇼와마을 상점가들 (관광객이 북적이는 모습) 	<p>Na) 인구 2만 5천명의 소도시 분고타카다 시.</p> <p>이곳에 쇼와 시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쇼와 마을 재래시장인데요.</p> <p>총길이가 500m의 쇼와 마을 재래시장은 크게 쇼와 상점과 핵심 시설인 쇼와로만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에 집계한 관광객만 36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p> <p>이곳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p> <p>분고타카다 시가 재현한 쇼와시대는 일본의 1926년부터 1989년 까지를 말하며 세계적 금융공황을 함께 겪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다시 일어나기까지의</p>	 <p>(쇼와마을 재래시장 입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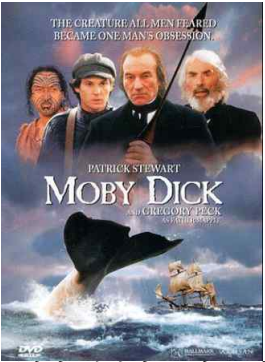
	<p>- 시장 관련 인물 인터뷰 (분고타카다 시 관광 마치즈쿠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다 요지)</p> <p>- 우리나라 6, 70년대 시장 모습과 비교 (쇼와 자료화면 1.)</p>	<p>시대입니다.</p> <p>int) 1992년에 지역상업 활성화 방안을 찾던 도중 이곳 쇼와 마을이 쇼와시대 초기의 근대화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주목 하게 되었고 그 점을 이용해 1997년부터 쇼와 시대 박물관이라는 테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추억에 빠져 이곳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했고 그 첫 번째 방안이 애니메이션 이였습니다. 그 시절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쏟아져 나왔고 그 애니메이션들을 통한 캐릭터 산업으로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 큰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p> <p>마치 서울의 6, 70년대 모습 같죠? 이런 재래시장 사이에 더 친숙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p>	 <p>▲ 쇼와 거리 상점에서는 일본서 나막신(메모리상)과 계란의 유래를 소개하는 안내문이 있다.</p> <p>(쇼와 마을 재래시장 모습)</p>  <p>(6, 70년대 비교사진)</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와노마치 전시관 입구 - 장난감, 만화 전시 코너 - '마징가 제트'와 '울트라맨' 장난감 - 각종 캐릭터 장난감 - 에키도리에 장난감 가게 	<p>금방이라도 날아 갈 것 같은 아톰이 보이세요? 이곳은 6, 70년대 쇼와시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쇼와노마치 전시관입니다.</p> <p>그 향수들 중 만화영화•캐릭터는 쇼와시대 후기에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가장 큰 산업들 중 하나였습니다.</p> <p>62년 '아톰'과 '철인 28호' 등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세계시장 점유율 60%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만화영화와 캐릭터 사업은 재래시장에도 묻어 있습니다.</p> <p>쇼와마을 재래시장 중 에키도리 상점가에는 방영 당시에 제작 되었던 캐릭터 장난감들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이 있습니다.</p>	 <p>(전시장 입구)</p>  <p>(에키도리 장난감 상점)</p>
--	---	---	---




	<p>- 상점주인</p> <p>- 흑백 TV에서 나오는 일본 만화영화</p>	<p>int) 옛 추억의 만화, 그게 생각나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고요. 요즘은 구하기 힘들 것들이라 젊은 층 수집가들도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p> <p>Na) 미래를 꿈꾸게 했던 주인공들이 이제는 재래시장에 남아 추억을 지키고 있습니다.</p>	 <p>(흑백 만화)</p>
	<p>3) 미국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 <p>-스페이스 니들, MS사, 보잉사 등의 첨단산업 도시 시애틀의 도심부 전경과 한 재래시장</p> <p>-시애틀 항구를 항해중인 유람선과 시애틀의 특산물인 각종 꽃을 파는 상점가</p>	<p>Na)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보잉 사 등 첨단 IT로 대변되는 미국의 항구도시 시애틀. 그와 대조되는 '역사의 향기' 라는 무기로 세계인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 이곳에 있습니다.</p> <p>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것은 톰 행크스의 달콤 쌉싸름한 로맨스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p>	 <p>(시애틀 야경)</p> <p>(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p> <p>(시장의 입구)</p>


	<p>-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상징인 거대 황금돼지 저금통이 있는 입구의 시끌벅적한 분위기</p> <p>-고층 빌딩이 들어선 도심부 중심에 있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재래시장의 전경</p> <p>-시애틀 항구로 들어오는 각종 해산물과 활기찬 어부의 모습 등 항구 풍경</p> <p>-시장을 통해 해안가로 가고 있는 많은 인파</p> <p>-시장 내 상점의 창문을 통해 바다를 내다보며 여유롭게 대화하는 관광객들</p>	<p>관광객을 잠 못이루게 만드는 향기로 매료시키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는 오늘도 씩씩한 커피향, 달콤한 꽃내음, 신선한 해산물의 생동감이 만발했습니다.</p> <p>미국의 재래시장이라, 왠지 생소하고 어색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의외로 이 시장은 100년의 꽤나 긴 역사를 자랑한답니다. 처음에는 항구 옆 작은 어시장으로 시작되었죠.</p> <p>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장점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름다운 시애틀 항구의 낭만을 즐기려면 필연적으로 이 시장과 마주하게 됩니다.</p> <p>바로 시장 하부의 통로를 통해 해안가로 갈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해안가의 언덕지형에 자리잡은 재래시장.....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 하네요. 관광객들은 상점의 창문을 스크린 삼아 넓고 푸른 바다와 휘황찬란한 유람선을 눈에 담으며 쇼핑을 즐깁니다.</p>	   <p>(해안에 위치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
--	--	---	--



	<p>-파이크 플레이스마켓 상인 인터뷰</p> <p>-많은 관광객이 몰려 카메라와 휴대폰을 들고 있는 한 생선가게</p> <p>-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각종 생선을 맨손으로 주고 받고 손질하고 있는 생선가게 직원들</p> <p>-그 모습을 재미난 듯 신기하게 바라보는 어린 아이</p> <p>-스타벅스 1호점에서만 사용되는 원조 마크가 걸린 커피점</p>	<p>int) 시애틀은 사시사철 안개와 빗속에 덮여 있죠. 그래서 그런지 불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p> <p>하지만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통과 역사의 향기에 취해 삶의 활기를 되찾고 이곳을 다시금 찾곤 합니다.</p> <p>Na) 비릿한 바다내음을 풍기는 상점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p> <p>이곳의 생선가게에서 유명한 피쉬쇼가 곧 열리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어린아이 보다 큰 생선을 획 획 던지는데 참 잘도 받는군요. 손님이 생선을 주문하면 손질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펼치는데요. 생선 손질을 하는 동안 지루하게 기다려야하는 다른 시장들과는 달리 재밌고 활기찬 모습으로 이목을 끄는 모습이 이색적으로 다가옵니다.</p> <p>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빠뜨리지않고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p>	 <p>(시애틀의 불면, 우울증을 다룬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p>  <p>(스타벅스 1호점)</p>
--	---	---	--




	<p>-소설 모비딕의 책 표지</p> <p>-시애틀 향으로 갓 들어온 원두를 커피점으로 들여보내는 모습</p> <p>-스타벅스 1호점에서 판매하는 머그잔 등 기념품 (머그잔에 pike place market 이라고 적혀있다)</p> <p>-원조의 향과 맛을 느끼기 위해 이어진 긴 행렬</p> <p>-시장 곳곳에 위치한 원두 판매점과 커피전문점들</p> <p>-많은 사람들이 테이크 아웃 커피를 마시며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다.</p>	<p>신화속 인어 세이렌의 노래처럼 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스타벅스 1호점이에요.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의 일등항해사에게서 따온 이 이름은 항구 옆에 자리잡은 시장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이름입니다.</p> <p>시애틀 항구로 들어오는 신선한 원두를 도매하던 것에서 시작 된 이 커피점은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커피로 성장했죠.</p> <p>매일 수많은 관광객이 이 커피향의 원조를 느끼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을 서있다고 합니다.</p> <p>1970년대 미국에서는 고품질 커피의 붐이 일었는데 그 중심에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 있었습니다.</p> <p>이곳이 원두 유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그러한 커피 문화는 현재까지 오랜 향기를 타고 넘어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을 가장 향기로운 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p>	 <p>(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항해사 스타벅)</p>
--	--	--	--

	<p>-파이크 플레이스 마켓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대형 마트</p> <p>-시애틀 관광청 직원 인터뷰</p> <p>-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옆에 조성 된 빅터 스타인 브루엑 공원.</p> <p>-그를 기리기 위해 묘비앞에 꽃을 놓는 상인</p> <p>-관광통계를 보여주는 관광청 직원 (자막: 연간 1000만명-서울경제자료 데이터)</p>	<p>시애틀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이 시장도 한때 모든 향기가 날아갈 위기를 맞기도 했었는데요.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현대적 상권의 등장으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존폐의 기로에 놓였었습니다.</p> <p>int) 1963년 시정부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없애고 그곳에 고층빌딩을 세우는 도심재정비계획을 세웠었죠. 이때 건축가인 빅터 스타인 브루엑은 역사적 재래시장을 보존해 시의 상징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보존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p> <p>그의 주장에 동참한 시민들이 시장철거 반대운동을 벌여 시장을 지켜냈어요. 그 결과 역사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렇게 관광명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p>	 <p>(시장철거 반대운동 자료)</p>
--	---	---	---



	<p>-시장 한편에서 노년의 악사들이 낡은 악기로 연주하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고 관광객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p> <p>-음악을 들으며 이곳에서 파는 꽃, 커피, 해산물 등의 향기를 음미하는 사람들의 모습</p> <p>-시애틀 항구에서 출항한 한척의 배. 한국의 제주도로 입항하는 모습</p>	<p>SOV) (악사가 연주하는 악기의 음악소리)</p> <p>그렇다면 우리내 재래시장은 어떤 향과 맛을 품고 있을까요?</p>	 <p>(지역 특산품인 꽃을 파는 상점이 많다)</p>  <p>(250명이 넘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리의 악사)</p>
<p>3. 국내 재래시장</p>	<p>1) 제주도 동문시장</p> <p>-야자수가 열린 따스한 제주향. 그곳에서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동문시장의 모습</p> <p>-시장 입구의 돌하르방 한 쌍이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p>	<p>Na) 제주향에서 10분거리. 싱그러운 향기가 가득한 동문시장입니다.</p> <p>1945년에 생긴 제주도 최초의 상설시장이죠. 이듬해 모슬포 국방경비대가 생기면서 육지와와의 교류가 활발해져 제주를 대표하는 시장으로</p>	 <p>(제주항 연안여객 터미널)</p>



	<p>-시장에서 들어서자 보이는 황금빛 감귤</p> <p>-감귤의 향, 맛, 식감 등을 체험해보는 관광객의 모습</p> <p>-시장 이곳저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감귤</p> <p>-감귤 초콜렛, 감귤 쥬스 등 감귤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있는 상점의 매대</p> <p>-감귤을 이용해 제주 백성들을 수탈해가는 역사적 자료 화면</p>	<p>발전하게 되었습니다.</p> <p>시장입구에서부터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아닌 제주의 상징 감귤입니다.</p> <p>시장을 온통 메우고 있는 감귤은 싱그러운 향기, 반짝거리는 황금빛깔, 새콤달콤한 맛,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관광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p> <p>국민 비타민답게 동문시장 이곳저곳 둘러봐도 어디서든 보이는게 감귤.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감귤은 매우 귀한 과일이었는데요.</p> <p>조선시대에는 왕가에서 파견한 관리에 의해 수확된 모든 감귤은 한양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흔한 감귤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왕족과 중앙관리만 맛 볼 수 있는 과일이었다니 놀랍지 않나요?</p> <p>감귤은 역사적으로 중앙관리들의 수탈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사람들은 감귤을 지긋지긋하게 여겨 갑오개혁때 공물제도가 없어진 후로는 감귤나무가 버려졌다고 합니다.</p>	 <p>(싱그러운 제주 감귤)</p> <p>(제주 감귤 초콜렛)</p> <p>(대학나무라 불릴 만큼 한 그루만 있어도 엄청난 소득을 안겨주었다는 감귤 나무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p>
--	---	---	--




	<p>-제주 감귤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데이터 자료 표, 그래프)</p> <p>-동문시장에서 대량의 감귤을 도매해 제주항으로 향하는 업자의 모습</p> <p>-제주 감귤과 함께 진열된 오색찬란한 열대과일을 보고 신기해 하는 관광객들의 모습</p> <p>-많은 인파가 노점상에서 빙떡이 구워지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p> <p>-빙떡 골목에 위치한 여러개의 노점상</p> <p>-동문시장 내 펭 칼국수 가게에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p>	<p>하지만 해방후 4.3 항쟁, 한국전쟁 등으로 생활이 피폐해지자 농민들은 다시 감귤을 찾게 되었는데요.</p> <p>6~70년대 대학나무라고 불릴 만큼 제주의 경제를 살린 효자 과일이 되었습니다.</p> <p>그때부터 제주항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인 동문시장에 감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p> <p>국내에서 유일하게 난대성 기후를 띄는 제주의 동문시장에서는 다른곳에서 접하기 힘든 용과, 한라봉, 황금향 등 이국적인 과일의 맛과 향이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p> <p>시장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소한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요.</p> <p>제주지방의 향토음식인 메밀 빙떡을 파는 빙떡골목입니다. 제주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을 견디기 위해 차가운 성질의 메밀음식을 많이 먹었는데요, 오늘날에도 메밀을 이용한 빙떡, 펭 칼국수는 동문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먹거리중 하나입니다.</p>	  <p>(돌돌 말아서 먹는 떡이라 하여 빙떡이라 불리는 제주 전통 음식)</p> <p>(몽골의 지배 당시 유래 된</p>
--	---	--	---


	<p>-노점상에서 빙떡을 굽고 있는 상인 인터뷰</p> <p>-빙떡이 기름 둘러진 철판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맛보는 외국인들</p> <p>-수산물 상점에 잠수복을 입고 등장한 해녀</p> <p>-해녀의 망사리에서 전복, 성게, 소라 등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 쏟아져 나오는 모습</p> <p>-해녀가 직접 주문받은 해산물을 손질 해주는 모 습</p> <p>-동문시장에서 장사하는 해녀 인터뷰</p>	<p>int) 이 빙떡은 과거 제주가 몽골에게 100년동안 지배를 받던 시절에 유래된 아픔을 간직한 700년 전통의 음식이에요.</p> <p>그 후 세월이 지나 지역의 특산품인 메밀 전병을 이용한 음식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웰빙음식으로 알려져 제주사람 말고도 관광객이나 외국인한테도 인기가 많습니다.</p> <p>Na) 제주 해녀가 푸른 바다를 가득 건져 올렸습니다. 관광객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진귀한 바다의 보물들에 감탄사를 쏟아냅니다.</p> <p>옛날부터 제주의 여자는 밭에서 김을 매지 않으면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해야하는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왔는데요.</p> <p>제주 최초의 상설시장인 동문시장은 해녀에게도 주요 판로를 개척해주었습니다.</p> <p>int) 백날 물질하면 뭐해, 팔 데가 있어야지. 동문시장 생기고부터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 다 여기서 장사했어. 해녀들한테 고마운 곳이지.</p>	  <p>풍습인 기마공연을 관광에 접목시킨 제주도민들)</p>  <p>(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추진중인 제주 해녀)</p>
--	---	--	---

	<p>-동문시장 곳곳에 걸려있는 불조심 현수막</p> <p>-힘을 합쳐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는 여러 상인들</p> <p>-활기찬 모습으로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는 상인들</p> <p>-어둑한 새벽 여러 상인들이 밝게 인사를 나누며 장사준비를 하는 모습</p> <p>-많은 인파로 붐비는 동문시장 전경</p>	<p>na) 많은 제주 상인들의 보금자리였던 동문시장은 1954년 화재로 인해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p> <p>상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불과 7개월만에 지금의 자리에 다시 동문시장을 세우는 불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센 파도와 맞서 싸우는 제주 해녀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제주 동문시장.</p> <p>오늘도 이곳의 상인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새벽을 열고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에 들러 남쪽 섬 특유의 따사롭고 굳센 정취를 느끼고 갑니다.</p>	
	<p>2) 부산 부평시장</p> <p>-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산 중구 남포동</p> <p>-부평 갯통시장 간판</p>	<p>Na)부산의 중심. 중구 남포동을 여행하게 되면, 특이한 이름의 시장을 발견하게 됩니다.</p> <p>바로 '부평 갯통 시장'인데요.</p> <p>부평 갯통 시장은 1910년에 상인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어,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p>	

	<p>-시장을 들어가면, 한쪽 골목에 진열되어 있는 외제품들</p> <p>-한 골목에는 수입과자들만 파는 가게들</p> <p>-수입 화장품, 식료품을 파는 가게들</p> <p>-인테리어 소품들을 파는 가게들</p> <p>-관광객들이 소품들을 손에들며 구경하는 모습들(full shot)</p>	<p>약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시장이라, 전통 한국의 향이 강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부평 강통시장의 진짜 매력은 외국의 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p> <p>부평 강통 시장에서는 수입과자부터 시작해서 수입 화장품, 식료품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다 볼 수 있어, 거닐다 보면, 외국 시장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합니다.</p> <p>지금은 이국적인 느낌으로 관광객의 시선을 끌고 있지만, 1950년대, 즉 한국전쟁 전후로 하여 씁사름한 역사를 품고 있는 부평 강통 시장입니다.</p>	 
--	---	---	---

	<p>자료화면)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부산까지 내려오게 됨을 보여주는 지도. (잠깐 진짜 잠깐)</p> <p>재연) -보따리를 들고, 피난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 유유히 걸어다니는 미군, UN군들 -그리고 길가에 천을 풀어, 조그마한 물건을 올려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 -그 옆에 보면 떨어트리 놓았거나 두고 간 초콜릿, 과자, 통조림을 줍는 사람들</p> <p>자료화면) 사람들이 북적 거렸던 부평시장의 당시 모습의 사진을 짤막하게 보여줌</p> <p>-부산항에서 배가 들어오는 모습.</p>	<p>한국전쟁이 일어나, 부산이 임시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부산에는 많은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미군과 UN군들이 부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물자가 귀해, 사고 팔 물건이 없어지자, 상인들은 미군이 떨어트리거나 두고 간 초콜릿, 과자, 통조림 등을 가져다가 팔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이름이 부평 강통 시장인데요.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얼마하지 않은 이러한 식품들이 전쟁시절 상인들의 경제 줄, 목숨 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 구석이 아파옵니다.</p> <p>이러한 장사는 한국 전쟁이 휴전하고, 미군이 떠난 후에도 계속되어 1970-80년대 전성기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까지 만해도 한국에서는 외국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부산항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수입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입지의 유리함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욱 끌어 당겼습니다.</p>	 
--	--	---	--

	<p>- 수입 제품을 파는 가게에 싼 가격을 적어 꽂아 놓은 팻말.</p> <p>-수입 제품을 사는 관광객. 두 손에는 산 제품들이 많이 있다.</p> <p>-또 다른 골목으로 가면, 음식을 파는 가게로 골목이 가득 차 있다.</p> <p>-줄지어 저있는 비빔당면 가게들.</p>	<p>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대형 마트에서도 인기 있는 외제품들을 구할 수 있게 되자 잠시 주춤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주춤한 시기도 잠시, 부평 강통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p> <p>int) 다른 곳에서도 수입제품들을 많이 살 수 있는데요. 부평 강통 시장처럼 여러 종류의 외제품을 파는 곳도 많이 없고요. 여기만큼 싼 곳도 없는 것 같아요.</p> <p>Na)부평 강통 시장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어드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골목 전체를 가득 채운 다양한 먹거리입니다.</p> <p>다양한 먹거리들 중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당연 부평 강통 시장 일대에서 맛 볼 수 있는 비빔 당면입니다.</p>	  <p>(시장 풍경)</p>  <p>(시장 골목)</p>
--	--	---	--

	<p>-비빔 당면을 파는 상인 인터뷰 (인터뷰 하면서, 비빔 당면을 만드는 과정_당면이 들어가 있는 그릇에, 데친 나물을 얹고, 양념장을 올린 비빔당면.)</p> <p>-완성된 비빔당면 CU. -비빔당면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p> <p>-부평 갯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p> <p>-부평 갯통시장 입구로 들어서는 관광객들.</p>	<p>int)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으면 배고프니깐, 가볍게 그냥, 당면 삶고 시들시들해져서 못 파는 나물 요래 데쳐가지고 딱 얹어서, 양념장 딱 해서 이래서 우리 먹었어. 그냥 배고파서 간단하게 해먹었던 거지. 이렇게 유명해 질줄 몰랐지.</p> <p>Na)부산을 대표하는 명물이 된 비빔당면에는 밥을 먹는 시간조차도 아끼려한 부평 시장 상인들의 삶을 향한 열정과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p> <p>이러한 상인들이 있기에, 한국전쟁과, 대형마트와의 경쟁이라는 시련 속에서, 부평 갯통 시장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p> <p>오늘도 역사의 발자취와 사람의 향을 따라온 관광객이 부산 부평 갯통 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p>	 <p>(비빔 당면)</p>
--	--	---	--

	<p>*클로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시장 하이라이트 - 국내 시장 하이라이트 (옛 물건 시장 사람들 클로즈 업 위주) 	<p>Na) 왜 사람들은 많은 관광지 중 하필 재래시장을 찾는 것일까요?</p> <p>재래시장에는 그 나라, 그 지역의 역사와 오랜 세월의 향기가 녹아있고 다른 관광지와는 다르게 그 문화와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p> <p>모든 옛것들이 그렇듯, 낡아서 사라질 위기를 넘기고 나면 오히려 오래된 것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p> <p>이 달콤 쌉싸름한 향기는 재래시장이 아니고선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 할 것입니다.</p>	
--	---	---	--

- 세계 시장 하이라이트

- 국내 시장 하이라이트
(옛 물건 시장 사람들 클로즈 업 위주)

Na) 왜 사람들은 많은 관광지 중
하필 재래시장을 찾는 것일까요?
재래시장에는 그 나라, 그 지역의 역사와 오랜
세월의 향기가 녹아있고 다른 관광지와는 다르게
그 문화와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옛것들이 그렇듯, 낡아서 사라질 위기를 넘기고 나면 오히려 오래된 것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이 달콤 쌉싸름한 향기는 재래시장이 아니고선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 할 것입니다.